

## 에스겔서의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

민유홍\*

###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잘 구성된 문학 작품의 시작 부분에는 그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시된다.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사건의 배경과 전체 조건들이 설명되며, 사건이 전개될 방향이나 작품 전체의 주제가 암시되어 있기도 하다. 에스겔서가 구약의 어떤 예언서들보다도 전체적으로 잘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sup>1)</sup>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이 에스겔서에서도 성립하리라는 추측은 자연스러우며 특별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에<sup>2)</sup> 포함되어 있는 단락 3:24하-27은 아직까지도 그 의미와 기능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아서 예언서의 처음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침멀리(W. Zimmerli)는 이 단락에 대해 “에스겔서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들 가운데 하나”<sup>3)</sup>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단락에는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로 불리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한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rathenau@hanmail.net](mailto:rathenau@hanmail.net).

- 1) 19세기에는 에스겔서를 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하나의 잘 구성된 문학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자주 인용되는 루돌프 스멘트(R. Smend, *Der Prophet Ezechiel* [Leipzig: S. Hirzel, 1880], xxi)의 평가가 이런 시각을 잘 대변한다. “Das ganze Buch ist vielmehr die logische Entwicklung einer Reihe von Gedanken nach einem wohlüberlegten und z.T. ganz schematischen Plane, man könnte kein Stück herausnehmen, ohne das ganze Ensemble zu zerstören” (책 전체는 부분적으로 도식적이면서 심사숙고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사고들의 논리적 발전이다. 사람들은 전체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을 떼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를 예언전승들의 단순한 모음집으로 간주했던 20세기 전반기의 연구 경향을 거치면서, 근래의 에스겔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금 19세기와 유사한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블렌킨쑤(J. Blenkinsopp)은 에스겔서가 “건축 작품과 같이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조셉 블렌킨쑤, 『이스라엘 예언사』, 황승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291 참조).
- 2)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은 1:1-5:17이다.
- 3) W. Zimmerli, *Ezechiel 1-2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106.

로지에서 야웨의 현현을 경험하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만(1:1-3:15) 뜻밖에도 야웨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집 안에 가두라는 명령을 받는다(3:24). 뿐만 아니라 야웨는 에스겔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선포하신다(3:26). 감금과 언어장애는 공중 앞에 등장하여 야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활동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을 방해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티프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에스겔 사역의 가장 처음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많은 호기심을 자아낸다.

이 단락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 개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단락과 주변 본문들과의 관계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락을 소명 기사의 종결부로 간주하고 4:1에서부터는 심판 예언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sup>4)</sup> 이와 달리 침몰리는 이 단락을 선행하는 소명 기사(1:4-3:15; 3:16하-21)로부터 구별하면서, 4:1-5:17과 함께 별개의 독립적인 단위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5)</sup> 두 번째는 이 단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클로스터만(A. Klostermann)이 에스겔의 감금과 언어장애를 강직증(catalepsy)에서 비롯된 증상으로 진단한 이래<sup>6)</sup>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이 단락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백년 넘게 인기를 누린 바 있다.<sup>7)</sup> 하지만 최근에 이런 해석은 전반적으로 크게 설득력을 잃은 상태이다.<sup>8)</sup> 오늘날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해석은 감금과 언어장애를 에스겔과 포로공동체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의 반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버그(M. Greenberg)

4) 이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J. Garscha, *Studien zum Ezechielbuch.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1-39*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1974), 250;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7), 151; N. R. Bowen, *Ezek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14.

5) W. Zimmerli, *Ezechiel 1-24*, 100-105 참조.

6) A. Klostermann, "Ezechiel. Ein Beitrag zu besserer Würdigung seiner Person und seiner Schrift", *ThStKr* 50 (1887), 391-439 참조.

7) 이 해석에서는 에스겔이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로 간주되고, 단락 3:24하-27은 에스겔의 신체적, 정신적인 마비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된다. 이 해석 방법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에스겔의 정신병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다(간질, 편집증, 알코올 중독에 의한 환각, 실어증, 히스테리, 노이로제 등).

8) 하지만 이러한 해석법이 오늘날에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할퍼린(D. J. Halperin, *Seeking Ezekiel: Text and Psychology*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은 에스겔의 감금과 결박, 언어장애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보웬(N. R. Bowen, *Ezekiel*, 17-18)은 이를 전쟁과 포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증상으로 해석한다.

는 포로들이 에스겔을 통한 야웨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야웨가 에스겔을 격리시키신 것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언어장애와 관련해서 그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었던 에스겔이 자신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포로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마치 스스로 말문이 막힌 듯이 느끼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편집비평적으로 에스겔서를 접근하는 폴만(K.-F. Pohlmann)은 이 모티프들 뒤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정황을 추적하는 대신에 이 모티프들이 에스겔서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행하는 문학적 역할에 주목한다.<sup>10)</sup> 그에 따르면 이 단락은 3:16하-21; 33:1-20; 33:21-22와 함께 디아스포라(Diaspora) 편집층에 속하는 핵심 본문으로서, 신학적 관심을 첫 번째 포로(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부터 디아스포라로 옮기기 위한 편집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단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언어장애 모티프가 두 개의 단락 3:26-27과 33:21-22를 통해 거시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가 에스겔서 전체 구성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두 개의 모티프가 속한 단락이 주변 본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3장에서는 두 모티프의 의미와 전체 구성 속에서 갖는 기능에 관해 분석한 후, 4장에서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전체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2.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가 속한 본문의 분석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감금과 언어장애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단락 3:24하-27이 주변 본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어떤 더 큰 본문 단위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본문은 1:1-5:17이다. 6:1 이하의 본문은 ‘말씀 사건 정형구’(“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לֵאמֹר”)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으로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1:1-5:17로부터 구

9) M. Greenberg, *Ezekiel 1-20* (New York: Doubleday, 1983), 127 참조.

10) K.-F. Pohlmann, *Ezekiel. Der Stand der theologischen Diskussio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8), 189 참조.

11) 이 용어는 ‘word event formula’ 혹은 ‘Wortereignisformel’을 번역한 것이다.

별되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 제외된다.

## 2.1. 에스겔서 시작 부분의 구성

먼저 에스겔서 시작 부분(1:1-5:17)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단락 1:1-3상은 에스겔서 전체의 표제(Überschrift)에 해당한다. 3절 하반절에는 에스겔서에서 환상 보고를 이끄는 전형적인 도입구인 ‘신적 강제 정형구’(“וַתְּהִי עָלַי דְּבַר־הוֹרָה”)<sup>12)</sup>가 나오고 이어서 3:15까지 에스겔의 소명 환상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야웨의 현현을 경험하고(1:4-28)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웨의 심판을 전할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2:3-3:11). 이 환상 보고는 3:15에서 에스겔이 텔아빱 그밭 강가에 거하는 포로들 사이에서 칠 일 동안 “얼이 빠진 채” 머물러 있었다는 기술로 종결된다. 3:16의 상반절(“칠 일 후에”)은 앞의 소명 환상과 뒤의 본문을 시간 순으로 연결해 주는 연결구의 역할을 한다. 이어서 3:16 하반절의 ‘말씀 사건 정형구’로 유도되는 짧은 소명 기사가 3:17-21 사이에 등장한다.<sup>13)</sup> 이 소명 기사에서는 에스겔의 예언자 직이 파수꾼에 비유되고 있는데, 제사장적 법 규정의 조건법 형식(kasuistische Gesetzesformel)<sup>14)</sup>에 따라 구성된 진술을 통해서 예언자의 임무가 제시되고 있다. 3:22에서 다시 ‘신적 강제 정형구’가 등장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환상 보고임을 암시한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비록 그 내용 전개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에스겔의 환상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하나의 연속된 본문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감금 모티프(24절)와 언어장애 모티프(26절)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4:1부터 다음 ‘말씀 사건 정형구’가 나오기 직전인 5:17까지 하나의 완결된 문학적 단락을 이루고 있다.<sup>15)</sup>

12) 이 용어는 블락(D. I. Block)이 그의 에스겔서 주석에서 소개한 명칭 ‘divine coercion formula’를 번역한 것이다.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35 참조.

13)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개의 환상 보고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본문을 이차적인 삽입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 Zimmerli, *Ezekiel 1-24*, 88;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140 이하; K. Schöpflin, *Theologie als Biographie im Ezechielbuch. Ein Beitrag zur Konzeption alttestamentlicher Prophetie*, FAT 36 (Tübingen: Mohr Siebeck, 2002), 190.

14) 조건법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접속사 ㅁ로 인도되는 조건절에는 범죄의 내용이 미완료로 기술되며, 이어지는 주절에 죄에 대한 판결이 제시된다. W. Zimmerli, “Die Eigenart der prophetischen Rede des Ezechiel. Ein Beitrag zum Problem an Hand von Ez 1-11”, *ZAW* 66 (1954) 1-26;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423 참조.

15) 비록 이 본문 내에 편집의 흔적들과 문학적 혼란들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통일적이고 완결된 본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 Zimmerli, *Ezekiel 1-24*, 100-105; J. Garscha, *Studien zum Ezechielbuch*.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포위부터 포로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들과 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 2.2. 에스겔 3:22-27과 에스겔 4:1-5:17의 관계

본문 3:22-27은 22절에서 환상 보고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적 강제 정형구’에 의해 선행하는 본문(3:16하-21)으로부터 구별된다. 반면에 이 단락과 이어지는 본문 4:1-5:17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만 하는가? 두 본문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본문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 있는 본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환상 보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본문 3:22-27과 심판에 관한 상징 행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본문 4:1-5:17은 서로를 결합시켜 주는 아무런 문학적 장치 없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이 두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 형식과 내용에서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듯이 보인다.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 나갈 때 3:27에서 본문이 일단 종결되고 4:1에서부터는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특별히 3:27의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말을 전하라”는 야웨의 명령은 소명 환상 중에 있는 2:7; 3:11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이 본문을 소명 환상의 일부로 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1:4에서 시작되는 긴 예언자 ‘취임식(inaugural ceremony)’의 종결부로 간주하면서 4:1 이하의 본문으로부터 분리시킨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본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련의 간과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문 4:1-5:17은 서두에 새로운 본문 단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 사건 정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너 사람의 아들이!”라는 야웨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부름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처음이 아닌 본문 가운데서 사용되는 정형구이다. 만일 이 본문이 3:22-27과 구별되는 독립된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도입구의 부재는 에스겔서 전체에서 볼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sup>17)</sup> 다시 말하면 이는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1-39*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1974), 87; T. Krüger, *Geschichtskonzepte im Ezechielbuch*, BZAW 180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9), 114 이하; H. F. Fuhs, *Ezechiel 1-24* (Würzburg: Echter-Verlag, 1984), 32-39.

16) 예를 들어 블락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151)과 가르샤 (*Studien zum Ezechielbuch.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1-39*, 250)는 3:22-27을 4:1 이하의 본문으로부터 떼어 내서 1:4-3:15의 첫 번째 환상 보고에 포함시켰다.

17) 에스겔서에서 ‘신적 강제 정형구’를 도입구로 가지고 있는 환상 보고를 제외하면 4:1-5:17

4:1 이하의 본문이 3:22-27의 연속으로 의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증거는 4:13-15에 등장하는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이다. 이 구절을 제외하면 에스겔서에서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는 오로지 환상 보고 안에서만 나타난다. 13절과 15절에서 야웨의 말씀은 “ואמר”라는 정형구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데 야웨를 신인동형론적으로 묘사하는 이와 같은 정형구는 주로 환상 보고 내에서 사용된다.<sup>18)</sup> 환상 보고 밖에서 야웨의 말씀은 ‘메신저 정형구(Botenformel)’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나 ‘말씀 사건 정형구’에 의해 인용된다. 세 번째로 3:25와 4:8에는 동시에 “...가 너를 줄로 맨다(נתן עליך עבדותים)”는 어구가 등장한다. 비록 두 구절에서 주어가 각각 다르지만(3:25에서 주어는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무리인데 반해 4:8에서는 주어가 야웨이다) 거의 동일한 표현과 어휘는 두 본문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리키는 언어적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3:22-27은 독립된 예언 전승 혹은 독립된 문학적 단락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완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만일 침멀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24:25-27; 33:21-22와 거시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절 3:25-27을 이차적으로 삽입된 편집적 요소로 보고 제외시킨다면,<sup>19)</sup>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24절로 축소되어 그 내용이 더욱 빈약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더구나 이 본문 내에는 감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이 이 본문의 독립성과 완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사실 3:22-27과 4:1-5:17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감금의 의미이다. 에스겔서 연구에서 이 두 본문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지배적인 경향은 두 본문 사이의 내용적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에스겔 연구에서 감금 모티프가 상징하고 있는 바를 가장 단순하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침멀리가 유일하다. 그는 이 모티프를 4:1 이하의 상징 행위들과 연관시키면서 집에 갇힌(סגר)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했다.<sup>20)</sup> 다음 장에서 다시금 자세히 논증하겠지만 감금 모티프에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은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의 집이고, 갇히고 줄에 매인 에스겔은 예루살렘 주민을 상징한

이외에 유일하게 에스겔 19장만이 ‘말씀 사건 정형구’ 없이 시작한다.

18) 이 정형구는 예외적으로 환상 보고 밖에서 23:36에 한 번 등장한다.

19) 침멀리는 3:25-27을 3:24 하반절의 감금 모티프에 대한 확장으로 간주하며 에스겔의 제자들에게 의해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W. Zimmerli, *Ezekiel 1-24*, 111을 참조하라.

20) Ibid., 108 참조.

다. 이렇게 감금 모티프의 의미를 이해할 경우 내용적으로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본문 3:22-27과 4:1-5:17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 때 감금 모티프는 예루살렘에 닥칠 운명을 보여주는 일련의 상징 행위들 가운데 첫 번째 상징 행위이자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심판 예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3:22-27은 독립적인 본문이 아니라 본래부터 4:1-5:17의 서막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형식적, 내용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본문 3:22-27과 4:1-5:17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본문이 아니라 서론과 전개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적이고 완결된 단위 본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2.3. 소명 환상의 형태로 구성된 에스겔 3:22-5:17

현재의 에스겔서에서 본문 3:22-5:17은 환상 보고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본문은 환상 경험이 아니라 대부분 상징 행위들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이 의미를 해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야웨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본문을 제외하면 에스겔서에서 상징 행위는 환상 보고가 아닌 예언 담화(prophetic discourse)의 형태를 하고 있다.<sup>21)</sup> 본문 3:22-5:17의 이와 같은 특별한 문학적 성격은 이 본문이 전승된 환상 보고라기보다는 편집 작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환상 보고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실제 이 본문 전체가 외적으로 환상 보고로 보이도록 해 주는 요소는 도입부인 3:22-24상과 4:13-15에 나오는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에 불과하며, 이 두 단락은 본문 전체의 크기에 비해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는 환상 보고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두 요소 중에서 본문을 환상 보고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입부는 에스겔서의 다른 환상 보고들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22절 상반절에 나오는 ‘신적 강제 정형구’는 환상 보고의 일반적인 도입구이며, 에스겔이 들에서 야웨의 영광을 만나는 환상 경험은(3:22하-24) 37:1에 그 병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왜 환상 보고의 형태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특별히 단락 3:22-27이 소명 환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

21) 에스겔서에서 본문 단위들의 문학 장르는 크게 에스겔의 환상 경험을 기술하는 환상 보고와 예언자에 의해 선포된 야웨의 말씀을 기술하는 예언 담화로 구분된다. 에스겔서의 예언 담화들은 공통된 구성 도식에 따르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민유홍, “에스겔서에서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42-168을 참조하라.

겔의 파송에 관한 단락 1:28하-3:11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두 단락에서 발견되는 병행 요소들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두 단락 사이의 이와 같은 뚜렷한 병행관계는 단락 3:22-27이 소명 환상의 도식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본문 3:22-5:17은 연결구인 3:16상(“칠 일 후에”)에 의해 앞의 소명 환상과 연결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본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본문 3:22-5:17은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에게 위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소명 환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 에스겔 1:28하-3:11과 3:22-27 사이의 비교

1:28하-3:11	3:22-27
ואפל על־פני (1:28하)	ואפל על־פני (3:23하)
ותבא בִּי רוּחַ כַּאֲשֶׁר דִּבֶּר אֵלַי ותעמדני על־רגלי (2:2상)	ותבא־בִּי רוּחַ ותעמדני על־רגלי (3:24상)
ואמרת אליהם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2:4하; 3:11하)	ואמרת אליהם כה אמר אדני יהוה (3:27상)
והמה אם־ישמעו ואם־יחדלו (2:5상) אם־ישמעו ואם־יחדלו (2:7상; 3:11하)	השמע ישמע והחדל יחדל (3:27하)
כי בית מרי המה (2:5상) כי מרי המה (2:7하)	כי בית מרי המה (3:27하)

이 소명 환상(3:22-27)은 첫 번째 소명 환상(1:4-3:15)과 함께 더 큰 규모의 종합적이고 완결된 형태의 소명 환상을 구성한다. 이 두 개의 소명 환상은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서로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소명 환상이 장엄한 야웨의 현현을 통해서 에스겔의 예언자직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예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을 받았음을 묘사하고 있다면, 두 번째 소명 환상은 첫 번째 소명 환상에 결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제공해 준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감금 모티프는 가장 첫 번째 심판 예언이면서 이후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개별적인 심판 예언들을 포괄하는 대표적 성격을 가진 심판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소명 환상이 칠 일 동안 “열이 빠진 채” 포로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에스겔의 모습에 대한 묘사로 연결됨으로써(3:15, 16상) 두

22) 예언자의 임무를 파수꾼의 임무에 비유하고 있는 단락 3:16하-21은 이차적인 삽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3:16상의 연결구는 본래 3:22-5:17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각주 13을 참조하라.

번째 소명 환상에서 제시되는 심판의 엄중함이 부각되는 효과가 얻어진다.

### 3. 감금과 언어장애의 복합 모티프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 두 모티프가 에스겔서 전체 구성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행하는 역할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 3.1. 감금 모티프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3:24에서 야웨는 에스겔에게 그의 집 안에 스스로를 가두라고 명령하신다. 3:25에서는 야웨는 또 어떤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무리가 그를 줄로 묶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러한 감금과 결박에 관한 단락은 에스겔이 야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것을 위임받은 소명 환상 1:4-3:15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 4:1-5:17 사이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감금과 결박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모티프를 에스겔의 육체적인 문제 또는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시키거나, 에스겔과 포로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연관시키는 것은 전체 문맥으로부터 벗어난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침멀리는 집에 감금당한 에스겔을 앞으로 다칠 예루살렘의 포위를 예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sup>23)</sup> 실제적으로 감금은 포위를 가장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해 주는 비유이다. 이렇게 감금을 포위로 이해할 때 이 모티프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하는 주변 문맥에 잘 어울리며, 특히 예루살렘의 운명을 다양한 상징 행위들을 통해 예견하고 있는 4:1 이하의 본문과 잘 조화된다. 하지만 침멀리는 그의 에스겔서 주석에서 이런 해석을 한 단락 안에서만 가볍게 언급한 채 지나가면서 감금 모티프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문학적 기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sup>24)</sup>

23) W. Zimmerli, *Ezekiel 1-24*, 108 참조.

24) 이는 근본적으로 침멀리가 에스겔서를 하나의 잘 구성된 문학작품이 아니라 예언들의 단순한 모음집으로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감금 모티프에 대한 칠편리의 해석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보자. 에스겔서에는 3:24 이외에 자기 집에 감금당한 에스겔이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상징임을 지지해 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본문 12:1-16과 24:15-27을 들 수 있다. 12:1-16은 예루살렘 주민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 행위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다. 여기에서는 에스겔이 집을 싸서 집을 옮기는 상징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과 왕이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 예언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에스겔이 집을 옮길 때 집의 벽(77)을<sup>25)</sup> 뚫고 나가는 것이(7절) 예루살렘 주민과 왕이 무너진 성벽(77)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나가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12절).<sup>26)</sup> 이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집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갈 예루살렘 주민 또는 왕을 상징하고 있다. 24:15-27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이 파괴될 것과 예루살렘 주민이 죽임을 당할 것을 상징 행위를 통해 예언한다. 이 본문에서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의 함락 때 죽임을 당할 예루살렘 주민과 파괴될 성전을 상징하고 있으며,<sup>27)</sup> 에스겔은 자기 가족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 앞에서도 슬퍼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예루살렘 주민(및 포로들)을 상징한다. 이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상징 행위에서는 에스겔 자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위한 상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칠편리의 해석을 확장해서 감금 모티프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에스겔의 집이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혹은 그의 아내)이 예루살렘 주민(또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연관해서 3:25에서 에스겔이 줄로 결박당하는 것은 포위당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겪게 되는

25) 한글 성경 『개역개정』 에스겔 12:5, 7에는 ‘키르(77)’가 ‘성벽’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키르(77)’는 성벽이 아니라 에스겔 집의 외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민유홍, “에스겔서의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분석”, 149를 참조하라.

26) 이 상징 행위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한 번 집을 옮겼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27)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예루살렘 주민의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본래적인 해석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확대된 이차적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는 예루살렘 주민의 죽음이 성전 파괴보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해석이라는 점과, 야웨가 일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성전 파괴에 관한 구절이 에스겔이 일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나머지 구절들과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에 관하여 민유홍, “에스겔서의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분석”, 151을 참조하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이 감금 모티프가 본문 3:22-5:17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티프가 구성에 미치는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는 에스겔이 자신의 집에 감금당하는 상징 행위가 그의 사역 초기에 일시적으로 행해졌거나, 혹은 3:22-5:17의 본문에만 국한되는 예언 활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스겔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예언 사역 전체를 관통해서 지배하는 핵심 모티프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다시 말해 3:24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감금 상태는 이 상징 행위가 예견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예루살렘의 포위)이 소멸될 때까지, 즉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포위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의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활동 영역이 예언 사역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지에 전해지기 전까지 그의 집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매우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다.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에서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에스겔이 그의 집 외부에서 사역을 했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편집적 성격의 도입구들 8:1; 14:1; 20:1은 에스겔이 항상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뚜렷한 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장면이 하늘의 천상회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권오현<sup>29)</sup>과 열왕기하 6:32에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과의 전승사적인 연관성을 지적하는 침멀리<sup>30)</sup>는 모두 이 장면을 개별적으로만 주목할 뿐 에스겔서의 거시적 맥락에서 갖는 문학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거의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장면들은 3:24에서 시작된 감금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에스겔 사역의 첫 번째 단계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구성작업의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스겔서의 3:22에서부터 33:22 사이에 등장하는 상징 행위들은 모두 에스겔이 집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 없으며, 에스겔의 지속적인 감금 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 깊게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감금 모티프의 거시적인 기능은 두 가지 문학적 장치에 의해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을 받고 있다. 첫째는 이 모티프가 소명 환상 속에 등

28) 종종 이 장면은 에스겔에 대한 포로공동체의 폄박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면 W. Zimmerli, *Ezekiel 1-24*, 110을 참조하라. 하지만 이런 해석은 갑자기 들어온 다른 주제에 의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문맥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29)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연구 1』(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325 참조.

30) W. Zimmerli, *Ezekiel 1-24*, 209 참조.

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언어장애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명 기사는 예언자의 사역 방향과 내용, 그리고 성격을 전체적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소명 환상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심판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감금 모티프가 에스겔의 심판 예언 사역 전체를 지속적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본문에서 감금 모티프는 이미 거시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언어장애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 3:26-27; 24:25-27; 33:21-22로 이루어진 언어장애 모티프는 에스겔서를 크게 심판 예언의 시기와 회복 예언의 시기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야웨의 구원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 감금 모티프가 이 언어장애 모티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금 모티프의 의미가 본문 3:22-5:17을 벗어나 에스겔의 사역 전체, 또는 에스겔서의 전체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장애 모티프가 33:21-22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감금 상태도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포로지에 전달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의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에스겔이 언어장애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왜 감금 상태의 해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가이다. 이는 아마도 감금의 해제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최후를 상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표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금이 포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적절한 상징인 반면에,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앙과 파국의 의미보다는 해방과 자유의 의미가 더 강하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감금 상태의 해제가 아닌 다른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이미 제시되어 있다(12:1-16; 24:15-27). 이와 더불어 언어장애의 시작과 치유는 심판과 회복의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감금 모티프는 근본적으로 심판과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심판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시기가 시작됨을 암시하는 본문 33:21-22에 감금 모티프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3.2. 언어장애 모티프

### 3.2.1. 언어장애 모티프의 분석

에스겔서의 세 단락 3:26-27; 24:25-27; 33:21-22는 언어장애 모티프를 통해서 거시적인 맥락에서 상호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3:26-27에서 야웨는 에스겔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신다. 24:25-27에서는 예루

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질 때 그가 언어장애 상태에서 회복되리라고 예견된다. 33:21-22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온 자가 포로지에 도착했을 때 에스겔이 언어장애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선 감금 모티프가 일종의 상징 행위인 것과는 달리 언어장애 모티프는 상징 행위가 아니라 에스겔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에스겔서에서 상징 행위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장애는 에스겔 혼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란 점에서 다른 상징 행위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언어장애를 포로들에게 알리거나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신다.<sup>31)</sup>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 사이의 모순은 27절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침멀리는 단락 3:24하-27에 대한 분석에서 24절 하반절의 감금 모티프만을 본래적인 야웨 말씀으로 인정하고, 25-27절을 감금 모티프에 대한 이차적인 확장으로 간주한다. 언어장애 모티프의 해석에 있어서 그는 에스겔의 언어장애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지 7일 후에 시작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거부한다. 그는 이 모티프가 본문 33:21-22에서 기원하며, 본래 에스겔의 언어장애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만 지속되었던 일시적인 사건이었다고 본다.<sup>32)</sup> 또한 그는 3:26-27에서 언어장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33:21-22에서 발생할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침멀리의 견해를 쫓아서 폭트(E. Vogt)도 감금 모티프만을 본래적인 야웨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25-27절을 이차적인 확장으로 간주한다.<sup>33)</sup> 그는 25-27절이 본래 24:25 뒤에 있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본래의 문맥에서 에스겔의 고난(끈으로 결박당함, 언어장애)이 그의 아내의 죽음에서 비롯되었고,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도망자가 포로지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침멀리와 폭트의 해석은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읽을 때 에스겔의 언어장애

31) 이로 인해서 언어장애 모티프는 특별히 문학적 특성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장애 모티프가 담지하고 있는 에스겔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그 신학적 의미는 현재의 에스겔서와 같은 잘 구성된 문학작품 내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나며,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티프는 대중 앞에서의 선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언서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행해진 구성작업의 결과로 판단된다.

32) W. Zimmerli, *Ezekiel 1-24*, 109 참조.

33) E. Vogt, *Untersuchung zum Buch Ezechiel*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1), 93 참조.

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본래의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현재의 본문에서 언어장애 모티프가 구성의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신학적 메시지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26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장애의 목적(이쉬 모키아흐[יש מוכיאח]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을 고려할 때, 이 모티프가 유래한 본래의 정황을 찾고 모티프의 비현실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보다 현재의 본문에서 이 모티프가 담지하고 있는 의도와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

현재 에스겔서에서 언어장애 모티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단락은 3:26-27과 33:21-22이다. 이 두 단락은 의미 있는 모티프를 구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두 단락이 처음부터 한 쌍으로 의도되었고 세심한 구성작업의 결과임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증거로는 무엇보다 먼저 두 단락이 보여주는 대칭성이 있다. 3:26에서 에스겔의 언어장애는 ‘환상 중에’ 시작된다. 이와 대칭적으로 33:22에서는 환상 경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적 강제 정형구’를 통해서 ‘환상 중에’ 언어장애가 치료되었음이 암시되고 있다. 폭트가 주장한 바와 같이 3:25-27이 본래 본문 24:15-27에 속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멋진 대칭성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외에도 단락 33:21-22의 편집적 성격은 이 단락들이 구성작업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33:21-22를 전승된 본문이 아닌 ‘구성된’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33:21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처음 포로지에 전해진 날짜와 그 때의 상황에 관한 보고는 내용적으로 완결적이고 그 자체로 이해 가능하다. 때문에 구태여 22절이 없더라도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전승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에스겔의 언어장애가 치유되었음을 보고하는 33:22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3:26-27을 함께 읽어야만 한다. 둘째로 33:21의 사건과 33:22의 사건은 시간 순서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간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인위적이고 어색하다. 특히 시간 표현에서 ‘저녁-아침’이라는 도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곳 이외에 에스겔서에서 이 도식이 적용되고 있는 본문은 12:1-16과 24:15-27이다(특히 12:7-8과 24:18을 보라). 이 두 본문은 모두 에스겔서의 구성 과정에서 예언 담화가 이야기 형태로 개작되는 ‘드라마화’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34)</sup> 33:21-22가 이런 본문들과 유사한 시간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33:21-22

34) 민유홍, “에스겔서의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분석”, 151 참조.

의 편집적인 성격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본문 증거들에 근거해서 33:21-22를 전승 자료인 21절에 22절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물로 판단할 수 있다.

24:25-27은 형식적으로 본문 24:15-27에 속해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24:15-24와 24:25-27은 서로 구별된다. 비록 두 본문들이 상호 참조를 통해 결합되어 있지만(21절과 25절을 비교하라) 서로 다른 주제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24:25-27에서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에스겔의 언어장애는 3:26-27과의 연관관계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침멀리는 24:25-27을, 에스겔 1-24장을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모음인 25-32장을 넘어 33장으로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편집적 추가문으로 보았다.<sup>35)</sup> 또한 크뤼거(T. Krüger)가 잘 논증하고 있듯이 25-32장이 이차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sup>36)</sup> 본래 언어장애 모티프는 24:25-27 없이 3:26-27과 33:21-22로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2.2. 이쉬 모키아흐(אִישׁ מוֹכִיחַ)의 의미

에스겔 3:26에 따르면 야웨가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그가 포로들을 위한 ‘이쉬 모키아흐(אִישׁ מוֹכִיחַ)’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37)</sup> 따라서 언어장애 모티프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쉬 모키아흐’의 의미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키아흐(מוֹכִיחַ)’는 동사 כַּח(히필: 재판하다, 꾸짖다)의 히필 분사형이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단 한 번, 3:26에만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모키아흐’를 제외하면 에스겔서에는 어근 כַּח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에서 ‘모키아흐’는 두 개의 중요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이 표현은 법적인 전문용어(*terminus technicus*)로서 법정소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문맥에 따라서 고발자(창 21:25; 욥 19:5; 22:4; 32:12; 시 50:8, 21; 사 37:4)나 변호자(욥 13:3, 15; 15:3; 16:21; 40:2) 혹은 심판자(창 31:37; 욥 9:33)를 의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혜문헌에서 ‘모키아흐’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잠 9:7; 24:25; 25:12; 28:23).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구절에서 ‘모키아흐’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된다. 이에 근거해서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예언자로서의 사역 이외에

35) W. Zimmerli, *Ezekiel 1-24*, 578 참조.

36) T. Krüger, *Geschichtskonzepte im Ezechielbuch*, 307 참조.

37) 이 문장은 Waw-연결사(‘ו’) 이후에 *x-yiqtol* 형 문형이 이어지는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현재의 문맥에서 목적(*final*)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포로들 사이의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키아호’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3:26이 위치해 있는 문맥의 근본적인 신학적 관심사는 포로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만일 ‘모키아호’가 예언 사역과는 별개로 포로 공동체 내에서의 사법적 기능을 의미한다면, 이 기능의 중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의 문맥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모키아호’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 조정이 아닌 예언자의 특정한 역할 또는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윌슨(R. R. Wilson)은 ‘모키아호’를 지혜문학에서의 의미(‘꾸짖는 자’)가 아닌 법적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장애가 예언자의 중재적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sup>38)</sup> 다시 말하면 예언자를 통한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에서 이제는 오직 야웨로부터 백성에게로만 일방적으로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블락도 윌슨을 좇아서 ‘모키아호’의 기능을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언어장애가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sup>39)</sup> 윌슨과 블락이 ‘중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정소송 과정의 세 가지 기능(고발, 변호, 심판) 중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다소 모호하지만 대체적으로 ‘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9:8이나 11:13에서와 같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야웨에게 탄원하는 장면과 충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 많은 학자들은 ‘모키아호’를 지혜문학에서의 용법에 따라서 ‘꾸짖는 자’로 해석한다.<sup>40)</sup> 꾸짖거나 책망함으로써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은 예언자의 활동 가운데 ‘회개에로의 부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모키아호’가 예언자적 사역의 어떤 측면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법은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언자의 중요한 사역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구약의 예언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sup>41)</sup> 1) 심판 예언, 2) 회개에로의 부름, 3) 회복 예언. 예언문학의 이러한 범주들로부터 예언자에게 부과되었던 세 가지 핵심 임무를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1) 심판 메시지의 선포, 2) 이스라

38) R. R. Wilson, “A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T* 22 (1972), 91-104 참조.

39)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157 참조.

40) 다음을 참조하라. A. Bertholet, *Hesekiel*, H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36), 14; W. Zimmerli, *Ezekiel 1-24*, 93;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 (Ezekiel). Kapitel 1-19*,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76.

41) 윌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류호준,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998-1004 참조.

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권유, 3) 회복 메시지의 선포. 이 세 가지 임무들 가운데서 언어장애를 통해서 그 실행이 확실하게 방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 메시지와 회복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임무는 야웨로부터의 말씀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모키아호’의 기능을 이 두 임무 가운데 어느 하나와 연관시킨다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야웨는 그분이 계시하신 심판 혹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언어장애를 통해 막으신다는 것이다. 선포되지 말아야 될 야웨 말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스겔에게 계시된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만일 언어장애의 목적이 심판 예언의 선포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고 있는 문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언어장애를 통해 금지되는 것은 그 활동의 주도권이 야웨가 아닌 예언자 자신에게 있는 임무이어야 함을 암시하는데, 이에 가장 적절한 예언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의 권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모키아호’를 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보다 지혜 문학의 용법을 쫓아서 ‘꾸짖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야웨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공동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임무를 위임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3:16하-21의 파수꾼 모티프와도 잘 어울린다. 결국 ‘모키아호’의 임무가 중지되는 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예언자의 역할이 중지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키아호’의 임무가 언어장애를 통해서 중지된 것은, 2:10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힌 두루마리와 3:24의 감금 모티프가 암시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최종적인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33:21-22에서 에스겔의 언어장애가 치료되고 다시 ‘모키아호’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로써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것임이 암시되고 있다.

### 3.3. 감금과 언어장애 모티프와 에스겔 18장의 회개 요구 사이의 긴장

감금과 언어장애 모티프가 예루살렘에 대한 취소될 수 없는 야웨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이는 에스겔서 내에서 ‘회개로의 부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문들과 충돌한다. 특별히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웨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에서는 에스겔 18장을 개인적 책임에 관한 가르침으로 해석한다.<sup>42)</sup> 이 견해에 따르면 에스겔 18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운명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에서는 에스겔 18장이 제사장적 법 규정의 형식과 문체를 따라 구성된 본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적 책임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본다.<sup>43)</sup> 이 입장에서는 에스겔 18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여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박한 심판을 무효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향한 야웨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기능에 있다고 본다.<sup>44)</sup> 이러한 두 입장은 모두 이 본문이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18장을 심판에 직면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선포된 회복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다. 에스겔 1-24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맥락과 함께 바벨론 포로들에게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준비시키는 맥락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얽혀 있다. 11:14-21; 14:1-11; 20장이 이 두 번째 맥락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본문들이다. 이 본문들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미래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또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나 야웨에 대한 순종과 같은 인간의 책임이 주제로 등장한다. 특별히 14:6의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요구와 20:7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요구는 18:30-31의 관심사와 일치한다. 이처럼 14:1-11과 20장의 메시지가 18장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감

42) 다음을 참조하라. G. Fohr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79), 458;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r Überlieferung Israels* (München: Kaiser 1969), 405 이하; M. Greenberg, *Ezechiel 1-20*, 327-373.

43) 다음을 참조하라. W. Zimmerli, *Ezechiel 1-24*, 415;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556 이하;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JSOT Press, 1989), 33-60.

44) 다음을 참조하라.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57 이하;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 (Ezechiel). Kapitel 1-19*, 276.

안할 때, 에스겔 18장을 이런 두 번째 맥락에 속하는 본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18장의 회개로의 요청은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경고하고 미래의 회복을 위해 준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모티프가 의미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야웨의 심판과 18장의 메시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 3.4.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모티프의 역할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는 소명 환상의 형태로 구성된 본문 3:22-5:17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복합 모티프를 형성한다.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는 이 복합 모티프는 소명 환상의 문맥을 벗어나 33:21-22에서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에스겔서의 이야기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복합 모티프는 에스겔의 사역 시기를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두 단계로 나누고 심판의 시기와 새로운 회복의 시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에스겔서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함락 이전까지 에스겔의 사역 모습(집에 감금됨, 언어장애 상태)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이 복합 모티프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심판으로 채색되어 있는 소명 환상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핵심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 앞에서 복합 모티프가 포함된 본문 3:22-5:17이 1:4-3:15와 결합하여 더 커다란 규모의 소명 환상을 구성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만일 소명 환상이 본문 1:4-3:15로만 이루어졌다면 심판에 치우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에스겔서 전체가 아닌 단지 1-24장에 대한 서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25장 이후,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33장 이후는 에스겔 예언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우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 사역의 핵심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명 환상이 수정되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감금과 언어장애 모티프 그 자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33:21-22에서 이 두 모티프가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특별히 에스겔의 언어장애가 치료되어 ‘모키아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

성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는 복합 모티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요소가 소명 환상 안에 핵심 요소로 끌어들이질 수 있다.<sup>45)</sup> 회복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단지 암시만 되는 이러한 정교한 구성 방식은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에스겔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수사적 효과를 가져 온다.

#### 4.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에스겔서의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조사하고 에스겔서 전체의 거시적인 구성 속에서 이 두 모티프가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이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 3:22-27과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4:1-5:17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 이 두 본문은 서론과 전개와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본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본문은 최종적으로 소명 환상의 형태로 편집되어서 첫 번째 소명 환상(1:4-3:15)과 함께 더 커다란 규모의 소명 환상을 구성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구성 작업은 무엇보다 첫 번째 소명 환상에 결여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에스겔과 포로공동체 사이에 벌어진 갈등 상황으로부터 이 모티프들을 해석하려는 기존의 연구동향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맥락에서 이 모티프들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에스겔의 감금은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상징 행위로 이해될 때 전체의 문맥에 가장 잘 조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에스겔 자신(또는 그의 아내)과 그의 집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문 12:1-16과 24:15-27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함께 에스겔의 감금상태를 암

45) 파수꾼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 단락 3:16하-22와 33:1-9도 복합 모티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단락이 각각 복합 모티프의 단락(3:22-27과 33:21-22) 앞에 위치해 있는 사실은 파수꾼 모티프와 복합 모티프의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고 회개로 부르는 임무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파수꾼 모티프는 그 안에 심판과 회복의 전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모티프가 언어장애 모티프와 결합함으로써 언어장애와 그 회복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시하는 상황설명들 8:1; 14:1; 20:1은 감금 모티프가 에스겔서의 거시적인 구성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3:26-27과 33:21-22로 이루어진 언어장애 모티프는 본문의 본래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성 작업에 의해 추가된 편집적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언어장애는 ‘모키아호’로서의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고 교훈하는 예언자의 임무가 중단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한다. 언어장애 모티프는 감금 모티프와 결합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대해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또한 에스겔의 사역 모습을 규정한다.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가 의미하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로의 부름’을 주제로 하는 본문들(대표적으로 18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본문들에서 ‘회개로의 부름’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바벨론 포로들(그리고 이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을 경고하고, 교훈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감금 모티프와 언어장애 모티프는 심판의 주제에 치우쳐 있는 소명 환상(1:4-3:15)에 회복의 주제를 핵심 요소로 끌어 들인다. 이를 통해 소명 기사가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심판 예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 <주제어>(Keywords)

에스겔, 감금 모티프, 언어장애 모티프, 상징 행위, 소명 환상.

Ezekiel, confinement motif, dumbness motif, symbolic action, calling vision.

(투고 일자: 2016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연구 1』,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 민유홍, “에스겔서에서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42-168.
- 브루그만, 윌터, 『구약신학』, 류호준,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블렌킨썩, 조셉, 『이스라엘 예언사』, 황승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 Bertholet, A., *Hesekiel*, H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36.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7.
- Bowen, N. R., *Ezekiel*,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 Fohrer, 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79.
- Fuhs, H. F., *Ezechiel 1-24*, Würzburg: Echter-Verlag, 1984.
- Garscha, J., *Studien zum Ezechielbuch. Eine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von 1-39*,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1974.
- Greenberg, M., *Ezekiel 1-20*, New York: Doubleday, 1983.
- Halperin, D. J., *Seeking Ezekiel: Text and Psychology*,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Joyce, P.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JSOT Press, 1989.
- Klostermann, A., “Ezechiel. Ein Beitrag zu besserer Würdigung seiner Person und seiner Schrift”, *ThStKr* 50 (1887), 391-439.
- Krüger, T., *Geschichtskonzepte im Ezechielbuch*, BZAW 180,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9.
- Pohlmann, K.-F., *Ezechiel. Der Stand der theologischen Diskussio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8.
- Pohlmann, K.-F.,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 (Ezechiel). Kapitel 1-19*,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r Überlieferung Israels*, München: Kaiser, 1969.
- Schöpfli, K., *Theologie als Biographie im Ezechielbuch. Ein Beitrag zur Konzeption alttestamentlicher Prophetie*, FAT 36, Tübingen: Mohr Siebeck, 2002.
- Smend, R., *Der Prophet Ezechiel*, Leipzig: S. Hirzel, 1880.

Vogt, E., *Untersuchung zum Buch Ezechiel*,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1.

Wilson, R. R., "A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T* 22 (1972), 91-104.

Zimmerli, W., "Die Eigenart der prophetischen Rede des Ezechiel. Ein Beitrag zum Problem an Hand von Ez 1-11", *ZAW* 66 (1954), 1-26.

Zimmerli, W., *Ezechiel 1-2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Abstract>

## **Motifs of Confinement and Dumbness in the Book of Ezekiel**

Yoo Hong Mi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study, motifs of confinement and dumbness in Ezekiel 3:22-27 were analy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meaning, and to investigate their structural role in the macro context of the book of Ezekiel. First of all, 3:22-27 and 4:1-5:17 together form an independent, well-closed text unit, in which they are combined as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This text unit was intended to supplement and to extend the first calling vision (1:4-3:15). Regarding the confinement motif, if Ezekiel's confinement in his house is interpreted as a symbolic action for the siege of Jerusalem, then its meaning fits to the context at most. Two text passages, 12:1-16 and 24:15-27, in which Ezekiel himself (or his wife) and his house are used as symbols for residents in Jerusalem and the city Jerusalem respectively, and verses 8:1; 14:1; and 20:1, which imply Ezekiel's confinement, attest that the confinement motif plays a structural role of determining the story in the macro context of the book. In all probability, the dumbness motif (3:26-27; 33:21-22) is an editorial element, which was secondly added to the confinement motif. The dumbness symbolizes that the final judgement of God on Jerusalem is decided and can never be cancelled, so that it is prohibited for the prophet to warn and to admonish the people of Israel about the judgement of God. The confinement and the dumbness motifs are combined to a motif complex, which plays a structural role to divide the entire book into an era of retribution and an era of new hope for restoration. Finally the motif complex provides a way, through which an element of restora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alling vision (1:4-3:15), which is strongly coined with the perspective of calamity. Therefore the calling vision is extended to encompass the horizon of restoration.